

ESG 공시제도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이데일리 10월 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10.5일 「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금융위, 17일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의무공시’가 예정보다 1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ESG 의무공시 연기’ 관련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제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관계 부처·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ESG 공시제도 도입시기·방법 등 관련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1)